

三言 속의 情과 欲

崔 炳 圭*

— <目 次> —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삼언 속 욕에 대한 작가의 관점 |
| II. 삼언 속 정과 욕의 시대적 배경 | V. 나오는 말 |
| III. 삼언 속 정의 양태 | |

I. 들어가는 말

삼언은 명말 청초의 통속문학 작가 馮夢龍(1574~1646)이 편찬한 《喻世明言》·《警世通言》·《醒世恒言》이라는 세 부의 작품들에 대한 총칭이다. 삼언은 명말 청초의 主情主義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풍몽룡이 정리하고 편찬한 까닭에 작품 속에 나타난 정이나 욕에 관한 묘사는 더욱 심각한 의미를 드러낸다. 즉 명말 청초는 이른바 인성해방운동의 시기인 만큼 인간의 정이나 욕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사람들은 그 동안의 예교적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 본성 속의 이런 본능적인 면을 발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삼언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풍몽룡이라는 한 주정주의 작가에 의해 정리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삼언이라는 세 부의 단편 소설집 속에 나타난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과 육체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욕에 대해 분리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문학 속의 정과 욕의 문제는 비단 삼언에만 연

* 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루된 문제가 아니라 중국고전문학 특히 명청소설 속의 양성관계의 양태와 그 속에 나타난 정의 함의, 그리고 나아가 중국고전문학에 나타난 욕정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그 의미가 매우 깊다.

다만 삼언이라는 것이 여러 시대를 거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들의 총집합이라 그 속의 수많은 애정작품들이 모두 일관된 주제와 사상을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삼언 속의 애정작품 가운데 대표작이라고 칭할 수 있는 유명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 속에 나타난 정과 욕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삼언 속 정과 욕의 시대적 배경

명대 개국 초기에는 주원장이 송대 이학가 주희의 사서 오경으로 학문과 과거시험의 요체로 삼으면서 정주이학을 관방철학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이르러 왕수인이 등장하여 “致良知”를 제시하면서 사람 마음 밖에서 윤리강령을 찾아 도덕적 구속을 야기하는 정주이학에 반대하며 도덕 실천에 있어 사람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왕수인의 이런 주장은 당시 공맹을 중심으로 한 정주이학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은 아니었다. 그러나 왕수인의 정통학설에서 발전한 泰州學派는 반전통적인 과격한 사상으로 공맹의 도와 정주이학을 비방하며 당시의 자유해방정신을 부추겼다. 그 중 정주이학에 대해 치명상을 입힌 자는 바로 이지였는데, 명말청초의 인성해방주의 문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는 “童心說”을 통해 義理와 禮教를 부정하고 童心の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당시 봉건학사들의 문장은 의리와 예교만 얘기하는 거짓스러운 즉 동심이 없는 거짓 문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동심은 곧 진심이자 문학의 영혼이라고 주장하였다.¹⁾ 동시에 그는 당시 도

1) 《焚書》 “夫童心者真心也.....若失却童心，便失却真心。失却真心，便失却真人。”，“天下之至文，未有不出於童心焉者也。”，李贄，《焚書》，岳麓書社，1990，

학자들이 性を 중시하는 것에 반하여 情을 부르짖었을 뿐 아니라 情欲과 私心까지도 직시하며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철저한 否定과 해방을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가식적인 도학자들을 비웃으며 그들이 性を 중시하는 것에 반해 사람의 情과 欲을 주장하였다. 그는 심지어 ‘私心’이야말로 사람의 본질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사사로움이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은 사사로움이 있는 연후에 그 마음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만약 사사로움이 없다면 사람의 마음도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밭을 가꾸는 자는 가을에 수확하고자 하는 사사로운 마음이 있는 연후라야 밭을 가꿈에 온 힘을 다할 것이며, 집을 차지한 자는 창고에 얻은 물건을 쌓으려는 사사로운 마음이 있는 연후라야 집을 다스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며, 학문을 하는 자는 진취적으로 얻으려는 마음을 사사로이 품은 연후라야 과거에 응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²⁾

그 뿐만이 아니라 그는 私心에 기반하여 人欲을 긍정하였다.

이들테면 재화를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며, 학문에 힘쓰며,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 진취적이며, 금은보화를 많이 모으며, 자손들을 위해 전택을 많이 사들이며, 풍수가 좋은 곳을 찾아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게 하며, 무릇 세상의 모든 생산업 등에 종사함은 모두가 그들이 좋아하여 하는 바이며, 모두 알고 모두 말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간의 뜻이자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겠다.³⁾

이처럼 이지는 사람들이 재물을 좋아하고 여색을 좋아하는 등의 ‘인욕’

36쪽.

- 2) “夫私者，人之心也，人必有私而後其心乃見，若無私則無心矣。如服田者，私有秋之獲而後治田必力，居家者，私積倉之獲而後治家必力，爲學者，私進取之獲而後學業之治也必力。”李贄，《藏書》，中華書局，1974，544쪽.
- 3) “如好貨，如好色，如勤學，如進取，如多積金寶，如多買田宅爲子孫謀，博求風水爲兒孫福蔭，凡世間一切治生產業等事，皆其所共好而共習，共知而共言者，是真邇言也。”李贄，《焚書》，岳麓書社，1990，39쪽.

을 사람의 습성으로 보며 긍정하였다. 이런 이지(李之)의 사상은 명말 계몽사상의 흥기와 함께 문학에서도 이른바 반전통주의적 인성해방을 부르짖는 사상이 고조되었는데, 그 첫 번째 작가는 명말의 유명한 희곡 작가였던 湯顯祖였다. 그는 태주학파의 창시자인 王艮의 제자 羅汝芳의 사상을 이은 진보적 사상가로 이지를 매우 존경한 사람이었다. 그가 지은 대표적 희곡작품인 “臨川四夢” 가운데에서 《牡丹亭》은 그의 문학관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명작이다. 이 작품의 서문에 해당하는 題詞에서 그는 정의 가치를 극찬하고 있다.⁴⁾ 여기서 湯顯祖가 말하는 지극한 정이란 바로痴情을 가리킨다. 그는 깊은 정은 능히 생사를 초월하고 시공을 넘나드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정의 가치를 고양하였지만 그가 여기서 말하는 정은 사실 욕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엄격히 말해 유몽매에 대한 두려움의 정은 순수한 정신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청춘의 욕정이라고 볼 수 있다.⁵⁾ 여하튼 이지(李之)와 湯顯祖의 이러한 정에 대한 提唱은 張岱나 三袁 형제들을 비롯한 수많은 만명문학가들에게 매우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들은 대체로 情으로써 理를 반박하며 격식을 벗어나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많은 작품들을 남겼을 뿐 아니라 유가의 공리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순수한 개인적 성령문학을 지향하였다.

명말에 등장한 통속소설인 삼언도 이러한 사상적 배경 하에서 태어난 작품이다. 심지어 혹자는 삼언 백여편의 소설작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정”이라고 말하였다.⁶⁾ 주지하다시피 풍몽룡은 삼언 외에도 《情史》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 그는 이 책의 이름을 일명 《情天寶鑑》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니, 그는 이런 여러 작품들을 통해 정의 가치를 매우

4) “天下女子有情，寧有如杜麗娘者乎！夢其人即病，病即彌連，至手畫形容，傳於世而後死，死三年矣。復能冥漠中求得其所夢者而生，如麗娘者，乃可謂之有情人耳。情不知所起，一往而深。生者可以死，死可以生。生而不可與死，死而不可復生者，皆非情之至也。” 湯顯祖，《牡丹亭》，里仁書局，1968，1쪽.

5) 吳存存，《明清社會性愛風氣》，人民文學出版社，2000，11쪽.

6) “三言百餘篇小說，一言以蔽之，曰情而已。”- 陳永正，《三言·二拍的世界》，遠流 출판사，1989，63쪽 참조.

중시하였다. 또 그는 자신이 편찬한 백성들의 노래집인 《山歌》의 序文과 《情史》의 서문에서도 명교의 허위를 고발하고 진정한 정의를 가치를 역설하기도 하였는데⁷⁾, 말하자면 그는 당시 사대부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를 통해 유가의 명교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자였다고 볼 수 있다.⁸⁾ 삼언에 나타난 치정의 고양도 그가 사대부들의 가식적인 예법이나 도덕관념보다도 일반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순수한 정과 인간미를 더욱 높이 평가함을 말해주고 있다.

III. 삼언 속 情의 양태

삼언에 수록된 120편 故事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나 그 가운데 가장 문학성과 사상성이 뛰어나 우리들의 주의를 끄는 것은 역시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작품들이다. 삼언 속의 남녀 간 애정을 다룬 많은 소설⁹⁾ 가운데 세인들의 주목을 끄는 대표적인 傑作들을 제시하면 〈蔣興哥重會眞珠衫〉, 〈賣油郎獨占花魁〉, 〈杜十娘怒沈百寶箱〉, 〈王嬌鸞百年長恨〉, 〈宋金郎團圓破氈笠〉, 〈鬧樊樓多情周勝仙〉, 〈張舜美燈宵得麗女〉, 〈唐解元一笑姻緣〉, 〈玉堂春落難逢夫〉, 〈喬太守亂點鴛鴦譜〉, 〈閒雲菴阮三償冤債〉, 〈錢舍人題詩燕子樓〉, 〈小夫人金錢贈年少〉, 〈吳衙內臨舟赴約〉, 〈宿香亭張

7) 최병규, 〈풍몽룡과 삼언〉, 《인문학논총(1)》, 2001, 국립7개대학공동논문집간행위원회, 309쪽 참조.

8) 그의 이러한 관점은 삼언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신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전통소설에서 사대부나 귀족, 그리고 書生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형식에서 탈피하여 주로 상인들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을 주인공으로 채택하였다.

9) 徐朔方的 《小說考信編》(上海古籍出版社, 1997, 314쪽)에 의하면 삼언 120편 작품 가운데 연애와 결혼을 다룬 작품은 대략 36편 가량이며, 명대의 작품 44편 가운데 연애와 결혼을 다룬 이런 작품은 반이 넘는다고 하였다. 또 劉哲은 삼언 속 결혼과 연애에 관한 소설작품은 모두 합쳐 68편이라고 보고 있다.(劉哲, 〈論三言二拍的婚戀小說〉, 《哈爾濱學院學報》, 2010, 2월 제31권 제2기, 81쪽.) 이는 애정소설을 보는 각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浩遇鶯鶯》 등의 작품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蔣興哥重會真珠衫〉은 혼외정사에 대한 내용으로 외도한 부인으로 인해 부부가 이혼을 하지만 그래도 부부간의 정은 남아 남편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을 때 부인은 옛정을 못 잊어 그를 극력 도와주고 남편도 그 아내에 대한 정으로 두 사람은 다시 재결합하게 되는 이야기다. 〈賣油郎獨占花魁〉는 가난하고 미천한 기름장수 秦重이 아름다운 기생 王美娘에게 보여준 정신적인 사랑, 즉 지극한 정성과 보살핌으로 결국 그녀의 芳心を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 남자가 자신을 낮추며 여성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정신적인 情이야말로 여성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杜十娘怒沈百寶箱〉은 두십낭이라는 명기가 자신이 사랑한 선비 李甲으로부터 배신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이 모아둔 금은보화 상자를 모두 물속으로 던지고 자신도 자결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남녀 간의 사랑에서 그 어떤 명예와 돈보다도 신의를 바탕으로 한 진실한 情이 가장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王嬌鸞百年長恨〉, 〈宋金郎團圓破氈笠〉, 〈張舜美燈宵得麗女〉의 이야기는 각각 王嬌鸞과 周廷章, 劉宜春과 宋金, 그리고 劉素香과 張舜美 간의 진정하고 순수한 정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 찬미하고 있다. 그들의 애정은 富貴의 차이나 부모의 간섭과 같은 그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진실함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작자는 청춘남녀의 진실한 사랑과 자유연애를 부르짖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집착과 용기를 칭송하고 있다. 〈吳衙內臨舟赴約〉의 내용은 吳衙內와 賀秀娥가 배 위에서 서로 첫눈에 반한 나머지 몰래 남녀 관계를 맺고, 하수아의 부모는 결국 딸의 명예를 위해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내용이다. 하수아의 적극적인 사랑에 그 어떤 부모의 명이나 봉건적 예교사상도 그들을 저지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閒雲菴阮三償冤債〉의 내용은 將軍府의 딸 陳玉蘭과 商人의 아들 阮三과의 연애를 다루고 있다. 진옥란은 부친으로 인해 혼기를 놓쳐버린 여자로 옆집의 총각 완화를 사랑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밀애를 벌이던 중 몸이

약한 완삼이 급사하면서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작가는 진옥란과 완삼의 열렬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낭만적인 것으로 칭송하기보다는 다소 불륜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봉건시대 부모의 命과 고집이 자식들의 애정의 불행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됨을 역설함으로써 남녀 간의 신분을 초월한 자유연애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玉堂春落難逢夫〉는 玉堂春이라는 현명하고 의로운 妓女와 王景隆이라는 청년 간의 우여곡절하고 다사다난한 운명 속 변하지 않는 진지한 정과 신의를 노래하고 있다. 결국 두 사람은 신분을 초월해 결혼함으로써 남녀 간의 진실한 정을 찬미하고 있다. 〈錢舍人題詩燕子樓〉는 徐州의 명기 關盼盼이 예부상서인 張建封과 사랑에 빠지지만 장건봉이 곧 병사하게 되자 자신도 자결로써 그의 뒤를 따르고자 하지만 여의치 않게 되자 머리 깎고 여승이 되어 십여 년을 그를 위해 염불을 외우며 지내다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해 병사하는 비통한 정을 노래하고 있다. 〈鬧樊樓多情周勝仙〉의 내용은 주승선이 범이랑을 보고 첫눈에 반해 自媒를 통해 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반대로 충격을 받아 기절하게 되고, 그녀가 죽은 것으로 안 가족에 의해 땅속에 묻히지만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 범이랑을 찾아가지만 그녀를 귀신으로 안 그에게 맞아 진짜 죽게 되었어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자신이 두 번 죽은 것은 모두 범이랑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주승선의 사랑에 대한 열정은 당시 남녀들의 사랑과 결혼, 행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반영하였다. 〈唐解元一笑姻緣〉은 당백호가 계집종 秋香에게 반해 奴僕의 신분으로 그 집에서 지내다 결국 그녀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고, 〈喬太守亂點鴛鴦譜〉는 세 쌍의 청춘남녀들의 결혼 헤프닝을 다루고 있다. 두 이야기는 모두 봉건예교와 전통적인 도덕관에서 벗어나 남녀 간의 자유로운 정에 입각한 연애와 名士의 자유분방하고 비공리적인 남녀관계를 풍류라는 이름으로 찬미하고 있다. 〈小夫人金錢贈年少〉는 가련한 첩의 운명을 지닌 한 다정한 여자의 짝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이 여자는 여러 번 주인을 옮겨가며 남자들에 의해 이리저리 이용되다가 결국 자살하게 되는데, 죽은 후에도 귀신이 되어 자신이 생전에 짝사랑하던 남자를 찾아 재물을 주며 그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결국 무심한 남자에 의해 거절당하는 내용이다. 작자는 여기서 겉으로는 여색을 멀리하라는 도덕심을 펼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여성의 다정함과 사랑에 대한 용감한 도전에 박수를 보내게 만들고, 정과 인간미가 결여된 남주인공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宿香亭張浩遇鶯鶯〉는 《서상기》의 내용을 발전시킨 작품으로 진보된 명말의 사회분위기를 잘 말해주는 작품으로 혼인과 연애의 자유, 그리고 남녀평등을 주장함과 함께 禮는 情에 따라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상으로 삼언 속 애정류를 대표할 만한 명작품들에 나타난 남녀 양성 간의 정의 양태와 그 주요 사상들에 대해 약속하였다. 이들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삼언 속의 애정소설들이 李贄의 영향을 받아 假道學을 반대하고 봉건예교의 불합리한 면들을 신랄히 풍자한 풍몽룡의 세계관이 대체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언에 나타난 남녀 양성 간의 정의 양태는 대체로 전통적 예교사상이나 그 어떤 도덕의식보다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서서 사람이 지닌 진실하고 순수한 정을 높이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은 그 어떤 현실적인 법규나 외부환경적인 조건보다도 인간이 지닌 순수한 정을 높이 평가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중국문학에서 일컫는 ‘치정’의 정신이다.

1. 치정

봉건적 예법과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순수하고 진실한 정, 즉 치정에 대한 찬미야말로 삼언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정의 한 경지이다. ‘치정’이란 ‘치’와 ‘정’이 결합된 말로 정의 지극함이 매우 심화되어 常人の 정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고 어리석으며 비정상적인 지경에까지 도달한 지극한 정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중국문학에서 말하는 ‘치정’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남녀 간의 부정적이고 빛나간 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공리적인 가치관을 초월하여 비공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자세로 세상을 보는 순수한 정의 한 경지이다. 삼언 속의 수많은

소설 가운데 아마 가장 인구에 회자하는 작품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蔣興哥重會珍珠衫〉은 이런 치정의식을 가장 잘 대변한다. 이 작품은 외도한 부인에 대해 남편이 도적적 관념에 입각해 부인을 일방적으로 성토하는 대신 자신의 불찰을 되돌아보고, 이혼을 당하고 재혼한 그 부인도 전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옛정을 잊지 못해 환난에 빠진 전남편을 동정하여 백방으로 도와주기도 한다. 또 이 부인의 남편은 두 사람의 사정을 알고 부인을 꾸짖는 대신 부인을 다시 전남편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결국 두 사람은 다시 합쳐진다.

이런 양성 간의 교류형태를 보면 이 소설은 현대소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진보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수호전과 같이 바람을 피운 여인을 주살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자신의 잘못도 반성하고, 이혼한 부부가 원수기간이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친구 이상의 정을 간직하고 있으며, 전남편에 대한 옛정을 단절하지 못한 부인을 부정하다고 여겨 책망하기보다 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다시 전남편과 합치도록 주선해주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이 작품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정다감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인 것이다. 부인의 외도를 자신의 탓으로 이해한 사려 깊은 남편 장흥가나 전남편을 연민의 정으로 도운 부인 왕삼교, 그리고 전남편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가련히 여긴 자상한 현감 오걸도 모두 치정을 지닌 자들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유부녀 왕삼교와 정을 맺고 눈물로 헤어진 진상도 치정을 지닌 자였으며, 이 작품의 작자는 이런 외도한 두 남녀의 사랑을 간통으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헤어지기 싫어하는 두 사람간의 끈끈하고 애절한 애욕에 가까운 이런 사랑을 ‘치정’으로까지 묘사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 소설의 작자가 사람이 지닌 정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있으며, 그 어떤 사회적 환경 요소들을 도외시키고 오직 인간 자체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정, 즉 치정을 존중하고 있음도 알 수가 있다. 이런 치정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장흥가와 왕삼교가 지현의 서재에서 상봉하여 서로간의 신분과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서로 얼싸안고 우는 장면에서 극대화되었다. 이 부분에서 장흥가와 왕삼교가 조

금이라도 현명했다라면 지현의 앞에서 끝까지 남매로 가장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감쪽같이 지현을 속이고 곤란한 입장을 모면했을 것이다. 그런데 작자는 그들이 그 모든 이해타산과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감정, 즉 情에만 충실한 치정을 지닌 인물로 묘사하였다. 얼핏 보면 그들이 당시 취한 어리석은 치정적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유치한 행동이지만 사실 그것은 이 소설의 작자가 故意적으로 情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묘사된 필묵이며, 이 소설의 압권이다. 인간의 순수하고 진정한 정이란 그 어떤 세속적인 이해타산과 체면, 그리고 입장 등을 초월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솔직한 행동은 도리어 치정을 지닌 지현의 마음을 감복시켜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다시 결합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 대목은 그야말로 세상사람들로 하여금 ‘情’이라는 것 때문에 한바탕 통곡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봉건적인 예교관념이나 도덕의식 혹은 관습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순수하고 진실한 정, 즉 치정의 마음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게다가 장흥가의 부인과 간통을 한 남자에 대해 작가는 경박하고 음흉한 호색함으로써 묘사하지 않고 다만 치정을 지닌 순진한 남자로 바라보고 있다. 비록 그는 도중에 병으로 죽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봄으로써 은연중에 작가의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와 같은 구태의연한 교화사상이 투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적어도 작가는 이 남성에 대한 그 어떤 명백한 비판은 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혼외정사를 묵인하고 간통한 남녀를 용서한 매우 드문 중국고전소설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

〈蔣興哥重會珍珠衫〉 외에도 삼언에서 치정을 다룬 작품들은 무수하다. 그 중 걸작으로 평가되는 〈賣油郎獨占花魁〉에서의 남주인공 秦重도 그런 인물이다. 그는 가난하고 천한 기름장수지만 王美라는 기생에게 반해 하룻밤을 보낼 화대를 마련하기 위해 꼬박 일 년 간 힘들여 저축을 한다. 그런데 고대하던 소기의 목적을 위해 찾아간 그 날, 그녀의 무관심으로 그의 목적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는 결코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그 여자에 대

한 정신적인 사랑을 가슴에 깊이 간직한 채 마냥 행복해하였다. 가난뱅이 기름장수 청년이 첫눈에 반한 기생과의 동침을 위해 일 년 동안 모은 돈을 기꺼이 날려버리는 사실에서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이성적이고 비실리적인 면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이런 행동이 바로 치정이라는 것이다. 치정의 경지란 그 정의 지극함이 어리석음 만큼 하나에 몰입하여 바보스럽고 순진하며 비현실적인 경지에 이른 상태이다. 탕현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치정이란 그 위대한 힘 앞에서는 그 어떤 현실적인 가치관이나 실리성도 도외시되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작품들 외에도 삼언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작품 〈杜十娘怒沈百寶箱〉에서의 여주인공 두십낭, 〈鬧樊樓多情周勝仙〉에서의 여주인공 주승선, 〈唐解元一笑姻緣〉에서의 당백호 등이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초개로 여기는 치정을 지닌 자라고 할 수가 있다.

2. 여성에 대한 동정, 연민, 존중의 정

치정에 이어 삼언 속에 나타난 정은 여성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정을 들 수가 있다. 사실 모계사회였던 중국의 상고문화가 말해주듯 중국에서는 자고로 여성에 대한 존중의식이 우리와는 판이하였다.¹⁰⁾ 일찍이 女娃의 天地創造 신화에서부터 시작하여 〈離騷〉에서는 전적으로 미인을 숭배하면서 이런 문화를 꾸준히 발전시켜나갔다. 이런 전통은 여성적인 도가사상의 유행과 함께 더욱더 깊어져나가면서 중국문화의 한 특성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고대의 수많은 남성 시인들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어투로 남편에게 버려진 여성이나 나그네의 처, 내지는 버림 받은 기녀와 같은 가련

10) “우리의 건국신화에서는 여성신이 남성에 비해 비하된 존재로 나타나며 구비전승 속의 여성신은 그 폄하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천혜숙,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구비전설의 세계〉(안동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년 정기학술발표논문)

한 여성들을 노래하기도 하며 중국시의 한 특성을 형성하였다. 삼언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동정과 존중의식은 당시 천민으로서 온갖 멸시를 받던 기생이나 첩, 하녀들에 대한 동정과 관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¹¹⁾ 삼언 가운데에는 기녀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특히 많이 보이며, 이러한 작품 속의 기녀들은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기질과 재기는 여염집 여인보다도 오히려 고고하고 총명하였다. 작자는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하는 천민집단인 기녀나 첩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동정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에 대해 간접적인 불만을 표현하였다.

〈賣油郎獨占花魁〉라는 작품은 이런 경향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걸작이다. 여주인공인 기생 왕미는 오랑캐의 난으로 인해 부모와 헤어져 기생집으로 팔려간 가련한 여자다. 이 여인에 대해 모든 표객들이 오직 색욕만을 탐하며 여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심은 눈곱 만큼도 없는 반면 남주인공인 기름장수 진중은 자신을 희생해 요금을 배려하고 보살펴주었다. 일년 동안 힘들여 모은 돈을 모두 털어 그녀와의 화대로 날렸지만 진중이 얻은 것은 오직 그녀의 무시와 뒤흔다꺼리였다. 하지만 진중은 그 어떤 불평 없이 정성껏 그녀를 보살펴주었다. 여자를 단순한 성적 노리개로만 대하던 당시 귀족자제들의 용속하고 몰인정한 행위에 비하면 기름장수 진중이 보인 행동은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여성을 보살피고 받드는 진정한 존중과 연민의 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삼언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이런 동정과 연민의 정은 나중에 남녀 간의 육체적인 성욕을 넘어선 이타적이고 망아적인 정신적 교류로 이어지는 《홍루몽》 속의 양성관계

11) 王挺의 〈挽馮夢龍〉이라는 시에는 “逍遙艷冶場，遊戲煙花裏。”라는 묘사가 있는데, 젊은 시절 풍몽룡의 기생과의 풍류행각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시다. 또 《太霞新奏》에 수록된 散曲에는 많은 부분이 靑樓를 출입해 기생과 연애한 사연들을 노래하고 있다. 그는 侯慧卿이라는 名妓를 실제 사랑하였으며, 나중에 그녀를 잃은 다음에는 너무나 슬피하여 〈怨離詞〉 30수를 지었고, 다시는 청루를 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젊은 시절 그의 이러한 행각은 그의 작품을 통해 기생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최병규, 앞의 논문, 308쪽.

로 전승되기도 하였다.

삼언 속에 묘사된 기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여자 중의 하나는 아마 〈杜十娘怒沈百寶箱〉에 나타난 두십낭일 것이다. 두십낭은 선비 이갑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이 모아둔 재산으로 妓籍을 떠나 이갑과의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밀 계획을 가진 여자였다. 그런데 그녀는 이갑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게 되면서 자결하게 된다. 작자는 두십낭이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인 기생이 사회적 강자인 선비와 富商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최약자인 기생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가련한 두십낭을 동정하게 하고, 무정하고 의리 없는 선비 이갑을 손가락질하게끔 만들었다. 두십낭은 비록 무식한 기생일지언정 人倫의 근본인 신념이 있고, 사람에 대한 믿음과 정과 의리가 있는 반면 성현의 서적들을 두루 읽은 선비 이갑은 결국 기생 두십낭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역설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기생에 대한 동정과 관심은 물론 존중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기녀에 대한 관심 외에도 삼언 속에는 妾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小夫人金錢贈年少〉란 작품은 기구한 운명의 첩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걸작이다. 이 작품 속에서 작자는 표면적으로는 정에 흔들리지 않는 한 평범한 소시민 남성을 찬양하는 듯하지만 골자 속으로 들어가면 첩의 운명으로 태어난 불쌍한 한 여성에 대한 관심과 동정을 읽게 된다. 이 소설 속의 여주인공인 小夫人(첩의 의미임)은 이름도 출신 배경도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채 王招宣(조선은 관직명이다)이란 관리의 나이 어린 첩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아주 작은 일로 인해 그 주인의 눈에 벗어나게 되고, 결국 다른 남자에게 팔려 시집가는 운명이 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매파의 세치 혀에 속아 넘어가 남편의 나이가 60이 넘는 노인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에 대해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젊은 집사 張勝을 몰래 짝사랑하게 되어 그에게 돈과 의복 등을 몰래 주며 자신의 정을 표시했지만 장승은 후환이 두려워 어머

니의 말대로 그녀와의 연락을 아주 끊고 지냈다. 그 동안 전 주인인 왕초선은 자신의 집에서 값비싼 보석인 구슬 염주가 사라진 것을 알고 그 혐의를 시집간 소부인의 짓으로 판단하여 그녀의 남편 집의 가산을 압류하고 남편인 장부자를 고문하며 그 염주의 행방을 묻던 중에 소부인은 방에서 자결해버렸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귀신이 되어 그 염주를 가지고 장승을 찾아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하소연하지만 장승은 그녀의 염주 속의 구슬을 몇 개 떼 내어 생활비로 사용하며 그녀를 잠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도 결코 남녀 간의 정으로 함께 살길 원하는 그녀의 간청을 무정하게 거절한다. 나중에 장승은 그녀가 귀신임을 알게 되고, 장부자와 함께 염주를 가지고 왕초선을 찾아 염주를 반환하게 되면서 장부자의 죄는 사면되고 소설은 막을 내린다. 그리고 결미부분에는 소부인이 생전 장승에 대해 정을 가졌기에 죽어서도 그를 찾아온 것이나 장승은 심지가 울곧아 그녀와 선을 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 화를 입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며 재물과 여색에 미혹되지 않은 장승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그 점을 찬미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정을 부정하고 장승의 덕을 찬미하는 고리타분한 교화적 색채가 물씬 풍기지만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누구나 장승의 무정함과 비인간적인 면에 고개를 흔들게 되고, 반면에 소부인의 다정함과 사랑에 대한 용기에 감탄을 보내게 된다.¹²⁾ 동시에 이 작품은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용당하며 살아가던 한 가련한 첩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여성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정을 강하게 느끼도록 해주고 있다.

그 외에도 삼언 속에는 기녀와 첩뿐만 아니라 하녀에 대한 관심과 존중의식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唐解元一笑姻緣〉에서 이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남주인공 당백호는 재기가 넘치는 유명한 문인이었지만 당시 가장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녀 추향에게 반해 결국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이는 신분과 가문을 매우 중시하던 당시의 관습과 제도 하에서 매우 생생

12) 歐陽代發, 《解讀宋元話本》, 雲龍出版社, 1999, 24쪽 참조.

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것은 분명 당백호가 추향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녀와 같은 하층민 여자에 대한 작가의 무편견과 존중의식을 읽을 수가 있다.

IV. 삼언 속 욕에 대한 작가의 관점

삼언 속의 욕을 논하기에 앞서 정과 욕의 포함관계에 대해 먼저 짚어보자. 정에 대한 용어가 처음 사용되던 그 원시적 함의를 고찰해보면, 《說文解字》에서는 정을 사람이 지닌 음기로 욕심을 지닌 것¹³⁾이라고 보았고, 注에서도 동중서의 말을 빌려 정이란 사람이 지닌 욕심으로 인욕을 일컫는 말이며, 절제를 하지 않으면 제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¹⁴⁾ 하지만 이는 정을 일률적으로 惡한 것으로 보던 동중서를 중심으로 한 漢代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정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던 선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선진시대 유가문화 가운데 맹자는 인간의 정을 인의도덕의 단초가 됨을 역설하면서 선천적인 정의 가치를 높이 인정하였는데, 이는 정에 대한 장자의 해석과도 유사하였다. 장자는 정을 ‘인간 본성 속 소박하고 진실하며 순수한 본연의 정감’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인간은 그 어떤 인의와 예절과 같은 외적인 도덕보다도 인간내면에 있는 자신의 깨끗한 본성을 되찾음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았다. 또 이를 위해서는 세속의 속된 행위를 쫓지 말고 순수하고 진실한 본래의 정감을 찾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회노 애락의 감정을 조절해야 함도 강조하였다.¹⁵⁾ 그러나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荀子에 이르면 “性惡說”과 함께 정의 함의가 인간이 지닌 욕심이나 욕망의 의미에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악한 것은 본성의

13) “情，人之陰氣有欲者。”-段玉裁, 《說文解字注》, 蘭臺書局, 1983, 506쪽.

14) “董仲舒曰：‘情者人之欲也。人欲之謂情。情非制度不節。’”-같은 책, 같은 쪽.

15) 최병규, <선진문화 속에 나타난 정의 함의>, 고려대학교 《중국학논총》 제34집, 2011, 64쪽.

바탕이 정이기 때문이고, 인간의 정이란 바로 욕망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을 건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로써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사실 순자도 공자와 맹자에 이어 정을 ‘진실한 마음’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순자는 공자와 맹자보다 한걸음 나아가 비록 정을 성의 실질적인 내용이자 바탕으로 중시하여 해석하였지만, 외계의 자극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인 욕심과 욕정의 근원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던 것이다.¹⁶⁾ 그러나 선진양한을 지나 위진남북조시대가 되면 중국문학의 추세는 이른바 “言志”에서부터 “緣情”으로 발전되면서 정의 擡頭가 본격화되고, 건안시기부터는 개인의 감성과 서정을 중시하게 되었고, 當時人들은 性보다 情을 더 중시하기 시작하였으니, 정은 이제 절제되어야 하는 억압의 대상에서 벗어나 高揚되어지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¹⁷⁾

그러나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중국의 학자들은 욕을 정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강했다. 이를테면 王安石, 二程, 陳淳 등을 비롯한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七情說’이 그러하다. 그들에 의하면 사람은 7가지 정이 있는데, 喜, 怒, 哀, 樂, 好(愛), 惡, 欲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주희가 주장한 ‘四情說’에는 희, 노, 애, 락만 정에 포함시키고 욕은 포함하지 않았다.¹⁸⁾ 주희는 이런 희노애락의 정이 발현되지 않으면 성이라고 하였다. 이런 주자의 논리에 동조한 이로는 戴震과 王夫之 등이 있었다. 그후 ‘十情說’도 출현하면서 욕을 그 속에 포함시켰으니, 대체로 중국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욕이 정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에 대한 선진시대의 원시적인 함의를 거슬러 올라가면 정은 분명 인간 내면에 있는 깨끗한 본성 속의 진실하며 순수한, 본연의 깨끗한 감정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게다가 현대 심리학의 연구에서도 성과

16) 같은 논문, 59쪽.

17) 이에 대해서는 최병규, <위진풍도에 나타난 정의 함의>, 조선대학교 <인문학 연구> 제43집, 2012, 참조.

18) 朱熹, 《四書章句集註》, 上海古籍出版社, 1983, 18쪽 참조.

욕은 분명 관계가 깊지만 욕은 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향도 크다. 본고에서도 정과 욕을 분리하여 논하는데, 말하자면 정은 정신적인 애정을 의미하고 욕은 욕망, 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¹⁹⁾

삼언 속 애정류에는 상당 부분 욕정과 성에 대한 묘사가 보이는데, 이는 그전 소설들에 비해 확실히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삼언 이전의 애정소설들이 대개 ‘情愛’만 중시하여 표현하며 남녀 간의 ‘情欲’에 대해 회피했다면 삼언은 ‘情愛’(즉 情)과 ‘情欲’(즉 欲)을 결합시켜 ‘情欲’을 대담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였으니 이는 이 소설이 지닌 진보적 의미이다. 삼언에서는 당시 풍조의 영향으로 사람이 지닌 성욕이나 욕정도 금기시하지 않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간주하였다. 그 이전의 소설들에서 가급적 회피하던 여자가 오줌을 누는 일이나 남녀 간의 성행위 등에 관한 묘사들을 삼언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기술하였다. 삼언에 나타난 생리적 현상이나 性에 대한 이런 자연스러운 묘사들은 비록 상당 부분 노골적인 면이 있지만 이는 전통적, 도학자적 성공포증에서 벗어난 풍몽룡의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이며, 그것은 전술한 대로 명말 사회상으로 부각된 개인의 욕망에 대한 긍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가 있다.

삼언에 나타난 욕정에 대해 陳永正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여기(즉 삼언)에는 두 남녀 간의 훈훈하고 애절한 연정도 없고, 깊은 철학적 사유도 없으며, 詩意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어떤 고아하다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있는 것이라곤 상대방을 희롱하고 유혹하며, 용속적인 색정과 욕욕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삼언과 이박 대다수의 애정고사들이다.²⁰⁾

19) 미국의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사랑의 요소로 욕정(lust), 애정(attraction), 애착(attachment)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애정과 애착은 정신적인 사랑에 해당하는 정에 속하고, 욕정은 육체적인 욕망인 욕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랑에서 욕과 정은 분리될 수가 있다.

20) “在這裏，沒有什麼溫情脈脈的愛戀，也沒有什麼深沈的哲學思辨，沒有詩意，沒有任何可稱得上的高雅的東西，有的只是挑逗，誘惑，有的只是庸俗的色情和肉慾。..... 這就是三言二拍中大多數所謂愛情故事。”，陳永正，《三言二拍的世界》，

위 논조는 다소 지나친 감도 있지만²¹⁾ 분명한 것은 삼언 애정류 속에는 진정한 사랑의 묘사보다도 남녀가 첫 눈에 반해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 찌릿찌릿하고 두 다리가 휘청거리며 서로 이끌렸다가 곧 서로 만나 한 두 마디 말을 나눈 채 바로 성관계를 맺으며 욕정을 발산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삼언 애정류 작품들에서 정과 욕을 따로 분리하여 순수한 애정소설과 愛慾소설(혹은 색정소설)로 나누기도 쉽지 않다. 즉 삼언 속 애정소설은 엄격히 말해 상당수가 남녀 간의 성애의 욕망을 다룬 애욕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즉 앞에서 예시한 삼언 애정소설 가운데 〈張舜美燈宵得麗女〉, 〈吳衙內臨舟赴約〉, 〈開雲菴阮三償冤債〉, 〈喬太守亂點鴛鴦譜〉 등의 작품도 사실 남녀가 상호교류에 의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사랑이라기보다도 兩性이 상대의 외모에 첫눈에 이끌려 몰래 만나 육체적 욕정을 나누는 애욕소설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삼언 속에서 남녀 간의 욕정을 다룬 작품으로 〈陳御使巧勘金釵鈿〉, 〈陸五漢硬留合色鞋〉, 〈簡帖僧巧騙皇甫妻〉, 〈汪大尹火焚寶蓮寺〉, 〈勘皮靴單證二郎神〉, 〈金海陵縱欲亡身〉, 〈錢秀才錯占鳳凰儔〉, 〈新橋市韓五賣春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陳御使巧勘金釵鈿〉의 내용은 양상빈이라는 한 탐욕스러운 사내가 속임수를 써 자신의 사촌 동생 노학증의 혼사를 가로채고 그 예비 신부를 속여 재물을 취하고 간음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사실을 알게 된 신부는 이로 인해 목을 매어 자살하고 노학증은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지만 지혜로운 진어사로 인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는 내용이다. 〈陸五漢硬留合色鞋〉의 내용은 장신이라는 끼 많은 남자가 반수아라는 처녀와 거리에서 서로 눈이 맞아 수아에게서 받은 정표인 가족신을 그 매파에게 넘겨주었지만, 그 매파의 아들 욱오한이 그 정표를 빼앗아 장신으로 행세하며 그녀와 오랜 기간 간통을 하다 나중엔 그녀의 부모를 간부로 오인해 모두 살해하게 되는 내용이다. 〈簡帖僧巧騙皇甫妻〉의 내용은 탐욕스러운 한 화

遠流出版社, 1989, 88쪽.

21) 앞에서 진영정은 삼언 120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 ‘정’이라고 말했지만, 삼언 속의 정은 진정한 정이 아니라 욕망과 혼재되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상이 황보송이라는 관리의 처 양씨에게 눈독을 들여 편지쪽지에다 그 부인과 마치 평소 서로 정을 주고받은 듯한 내용의 연애편지를 날조하여 보내 그것을 읽게 된 남편 황보송이 그녀를 집에서 내쫓게 만들고, 또 계락을 꾸며 쫓겨난 양씨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지만 나중에 악행이 들통 나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汪大尹火焚寶蓮寺>의 내용은 <簡帖僧巧騙皇甫妻>와 같이 탐욕스러운 승려들이 부녀자들에게 자식을 얻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기만하여 간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勘皮靴單證二郎神>의 내용은 궁녀 한부인이 임금의 사랑을 얻지 못해 앓다가 사묘에 있는 이랑신의 늙은 모습에 반해 사모하다 그것을 안 묘관 손신통이란 자가 이랑신으로 변장해 그녀를 간음하는 내용이다. <金海陵縱欲亡身>의 내용은 금나라의 廢帝인 해릉왕이 악랄하리만큼 탐욕스러운 기상천외한 색욕에 빠져 패가망신하는 내용이다. <錢秀才錯占鳳凰儔>의 내용은 안준이 고추방과 결혼하기 위해 사촌 동생 전청에게 자신으로 가장해 그녀에게 청혼하게 만들지만 전청은 사촌 형을 대신해 신방을 치렀지만 신부와 동침하지 않았기에 결국 현감은 군자의 마음을 지닌 그를 용서하였고, 안준은 탐욕으로 인해 자신의 돈만 낭비하고 남만 좋은 일을 시킨 결과가 되는 내용이다. 미인에 대한 욕심에 눈이 어두워 추행을 일삼는 안준의 호색행각과 욕정을 참으며 의리를 지키는 전청의 태도를 대비시켜 욕정에 대한 추구와 의리를 위해 욕정을 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新橋市韓五賣春情>는 신교 시장에 있는 부호의 아들 오산이 娼女 한오(아명이 금노임)의 유혹에 빠져 그녀와 밀회하며 과도한 색욕으로 인해 몸져누워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자신이 원귀의 혼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고 紙錢을 태우고 祭를 올린 후에 색욕의 병이 낫게 되고 지난날 자신의 욕정을 크게 반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상 삼언 속에 나타난 ‘욕’을 다룬 유명 작품들을 보면 주로 색욕을 다루며, 지나친 색욕이 패가망신으로 이어지는 교화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언은 욕욕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풍몽룡의 교화 의식이 드러나면서도 당시 ‘욕’을 중시하던 관점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1. 욕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식이 복합된 욕정관

전술한 바대로 삼언은 정당한 욕정을 인정하여 그전 소설들과는 달리 양성 간 정상적 성애나 생리적 욕구 현상들을 정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욕정을 상당히 긍정하였다. 삼언 애정류들을 보면 대개 남녀가 서로 첫눈에 반해 매과를 통하든 아니면 당사자들이 서로 직접 만나 거의 대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정을 확인하며 결국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張舜美燈宵得麗女〉의 장순미와 유소향, 〈吳衙內臨舟赴約〉의 오아내와 하수아, 〈宿香亭張浩遇鶯鶯〉의 이앵앵과 장호가 그러한 경우다. 여기서 작자는 남녀 간 사랑을 기반으로 한 육체관계에 대해 그 어떤 견책이나 폄하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삼언에서는 남녀가 상대의 미모(色)에 첫눈에 반하는 소위 ‘好色’적 행동에 대해 그 어떤 비판을 가하지 않고 정상적인 욕구로 여긴다. 이를테면 〈賣油郎獨占花魁〉에서 진중이 왕미낭을 보고 첫눈에 반해 그녀와 한번이라도 잘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노라는 생각하지만 그를 호색한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런 음심을 잘 추슬러 그녀에 대한 무한한 동정과 연민의 정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소설의 작가는 정은 바로 이런 욕과 색에서 시작함을 애기하기도 한다. 위에서 열거한 삼언 애정류 소설들을 보면 상당수가 색(욕)에서 시작하여 정을 쌓고 결국 결혼의 경지로 접어드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는 정당하지 못한 양성관계나 지나친 색욕은 탐욕으로 보며 이를 비판하였다. 삼언 속 많은 작품들이 탐욕적 색욕이나 성도착, 성방종과 같은 정당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작품 속 남녀주인공들은 성욕을 위해 理性을 팽개치기도 하면서 끝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나 결국에는 반드시 엄한 징벌을 받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상대를 속여 간음하는 내용들이다. 이를테면 〈陳御史巧勘金釵鈿〉 속의 梁尚賓, 〈簡帖僧巧騙皇甫妻〉 속의 簡帖僧, 〈勘皮靴單證二郎神〉 속의 손신통, 〈陸五漢硬留合色鞋〉 속의 욕오한 등과 같은 이들이 그 대표이다.

그 외에도 삼언 속에는 이미 결혼한 남녀가 서로 반해 바람을 피우는 이른바 혼외정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설에서와 같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견책하기보다는 사람이 지닌 욕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그리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됨을 서술함으로써 정당하지 못한 이성 간의 정욕이나 지나친 욕정에 대해서는 찬미하기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는 주로 비극적인 결말을 이끌어내어 주인공들의 욕정을 간접적으로 폄하하기도 하였으니 <蔣興哥重會眞珠衫>에서의 여주인공 왕삼교와 진상도 그런 경우를 피할 수가 없었다. 왕삼교는 혼외정사의 책임으로 이혼 당하였다가 다시 결합되지만 둘째 부인으로 전락하였고, 진상은 병으로 빨리 죽게 된다.

이처럼 삼언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욕정을 긍정하면서도 정욕을 추구하면 재앙을 입는다는 사실을 동시에 전함²²⁾으로써 정욕에 대한 주의와 경계심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남녀 간의 성애에 있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을 중시하는 이런 관점은 송명리학의 존천리, 멸인욕의 관점과는 다르고, 더구나 육체적인 접촉만을 추구하는 종욕주의와도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는 만명문인들의 진보적인 성애관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다.

2. 욕에 대한 과장적 표현과 미화의식

삼언은 통속소설로서의 작가가 독자를 의식한 나머지 마치 스스로 호색적이고 황음한 내용을 즐기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이 소설에 나타난 욕정에 대한 묘사의 바탕에는 작가가 고의로 욕정을 돌출적으로 강조하여 과장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미화하는 의식이 깔려있다. 명청소설에서는 종종 “하나는 ~이고, 하나는 ~이다.”라는 방식의 구절로 두 사람의

22) 앞에서 인용한 것 외에도 이를테면 <開雲菴阮三償冤債>에서 완삼이 雲雨 도중 급사한다거나 <陸五漢硬留合色鞋>에서 반수아가 자신의 不貞으로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자살하는 것도 모두 이런 점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만남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삼언 속에서도 이런 구절이 남녀 간 욕정을 묘사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하나는 젊은 소년으로 처음으로 그 맛을 보았고, 하나는 규방의 각시로 방금 그 단맛을 겪었네. 한 사람이 오늘밤의 화촉으로 나와 당신의 인연이 맺어졌다고 말하니, 한 사람은 오늘 밤의 이부자리가 부부간의 사랑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하네. 한 사람은 전생에 인연이 있어 月下老人을 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절대 서로 잊지 말자며 산과 바다와도 같은 굳은 맹서를 하더라. 서로 속을 태우며 누이오빠라는 것이 알게 뭐람. 눈앞의 즐거움만 도모하면 될 것을. 남편 있고 아내 있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두 마리의 나비는 꽃 사이에서 춤을 추고, 한 쌍의 원앙이 물 위에서 즐기네.²³⁾

위의 인용문은 〈喬太守亂點鴛鴦譜〉에서 선남선녀가 서로 만나 육체적 관계를 처음 맺는 장면으로 두 남녀의 정욕을 매우 미화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런데 다음은 〈陸五漢硬留合色鞋〉에서 욕오한이 장신으로 사칭하여 야밤에 반수아를 찾아가 그녀와 통정하는 이런 사악한 장면에서도 작자는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해 표현하고 있다.

豈惹 향내 나는 꽃이 마른 등나무에 감겨버리고, 아리따운 해당화 꽃이 난폭한 비에 꺾어져 버렸네. 올빼미가 비단 원앙의 등지를 차지하고, 봉황이 어찌하여 갈가마귀의 짝이 되었네. 하나는 입에서 ‘내 사랑’이라고 외치며 정말 멋진 여자라고 말하고, 하나는 정말 사랑을 갈구하여 그 낭군이 아닌 줄도 모르고 있네. 紅娘이 잘못해 張生이 아닌 鄭恒과 만날 약속을 하였고, 郭素가 王軒을 본 따 西施를 미혹하네. 가련하다! 옥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몸이 시정의 백정에게 던져져 버렸네.²⁴⁾

23) “一個是青年男子，初嘗滋味；一個是黃花女兒，乍得甜頭。一個說今宵花燭，到成就了你我姻緣；一個說此夜衾綯，便試發了夫妻恩愛。一個說，前生有分，不須月老冰人，一個道，異日休忘，說盡山盟海誓。各燥自家脾胃，管甚麼姐姐哥哥；且圖眼下歡娛，全不想有夫有婦。雙雙蝴蝶花間舞，兩兩鴛鴦水上遊。”馮夢龍，《醒世恒言》，三民書局，1988，151-152쪽.

24) “豆蔻包香，卻被枯藤胡纏；海棠含蕊，無端暴雨摧殘。鵝鵝占錦鴛之窠，鳳凰作

이런 상황은 비단 이 작품만이 아니다. 〈汪大尹火焚寶蓮寺〉에서 불문의 제자인 승려가 절에 수행하러 들어온 아녀자들을 강간하는 것을 알고 지현이 그들의 죄악을 찾아내기 위해 지모를 발휘해 절에 두 기녀들을 몰래 잠입시키는데, 그 중 한 기녀를 승려들이 간음하는 장면에도 이런 식의 묘사를 늘어놓고 있다.

하나는 불문의 제자요 하나는 청루의 가인이라, 불문의 제자는 거짓으로 나한으로 위장하고 청루의 가인은 양가녀로 변신했네. 하나는 해묵은 돌절구와 같아 그간 얼마나 많이 찼어졌고, 하나는 새로 만든 나무 말뚝이라 또 비바람 광풍에도 얼마든지 견뎌내네. 하나는 불문의 계율도 아랑곳없이 마음대로 즐기고, 하나는 현감의 부탁을 받들었지만 마음껏 쾌락을 즐기기도. 흡사 阿難菩薩이 마녀를 만나고, 玉通和尚이 紅蓮을 희롱하듯 하네.²⁵⁾

원래 삼언과 이박에는 남녀 간의 정사장면을 묘사할 때 “하나는 ~이고, 하나는 ~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것들과 같이 남녀 간의 정상적인 아름다운 만남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표현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정욕을 미화하는 삼언의 독특한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녀 간의 고상한 정의 세계를 표현한 《홍루몽》에서 가보옥과 임대옥 두 사람의 형상에 대해 작자가 묘사한, “紅樓夢 12曲” 중의 ‘枉凝眉’에서도 이와 같은 묘사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왕응미) 하나는 신선이 사는 곳의 기이한 꽃이요, 하나는 흙 하나 없는

凡鴉之偶。一個口裏呼肉肉肝肝，還認做店中行貨；一個心裏想親親愛愛，那知非樓下可人。紅娘約張珙，錯訂鄭恒；郭素學王軒，偶迷西子。可憐美玉嬌香體，輕付屠酤市井人。” 같은 책, 290쪽.

- 25) “一個是空門釋子，一個是楚館佳人。空門釋子，假作羅漢真身；楚館佳人，錯認良家少婦。一個似積年石臼，經幾多碎搗零；一個似新打木樁，盡耐得狂風驟浪。一個不管佛門戒律，但恣歡娛；一個雖奉縣主叮嚀，且圖快樂。渾似阿難菩薩逢魔女，猶如玉通和尚戲紅蓮。” 같은 책, 799-800쪽.

아름다운 옥이라네. 만약 서로 간에 기이한 인연이 없었다면 이생에서 왜 만났을 것이며, 만약 서로 간에 기이한 인연이 있다면 어찌하여 마음속의 일이 결국 허사가 되어 버렸나? 하나는 헛되이 한탄만 하고, 하나는 공연히 걱정만 하네. 하나는 물 속의 달이요, 하나는 거울 속의 꽃이라. 눈가에 그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기에,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하고 봄이 흘러 가을이 될 때까지 흐르는 눈물 건딜 수 있으리오!²⁶⁾

위 인용문은 가보옥과 임대옥의 고아한 기질과 두 사람간의 슬픈 인연을 매우 아름다운 詩化的 표현법을 사용해 묘사한 부분이다. 이런 표현법이 삼언에서 남녀 간의 저급한 욕욕을 묘사하는 데에도 그대로 사용된 것을 보면 다소 살풍경스럽다. 물론 《홍루몽》의 작가가 삼언의 이런 묘사법을 환골탈퇴적으로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하튼 이런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법이 남녀 간의 저속한 욕정묘사에까지 사용된 것은 그리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바로 육체적 욕정에 대한 삼언 작가의 과장적 표현 혹은 미화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삼언 작가의 욕정에 대한 미화의식은 〈勘皮靴單證二郎神〉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작품 결미에는 “자고로 음탕하면 횡사한다²⁷⁾”고 하며 음행을 경계하는 교화의식을 드러내면서도 작품 속 한부인의 청춘의 욕정과 이성애에 대한 춘심을 폄하의식 없이 진지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²⁸⁾ 한부인은 임금의 사랑을 얻지 못해 마음과 몸의 병을 얻어 궁에서

26) “(枉凝眉) 一個是閨苑仙葩，一個是美玉無瑕。若說沒奇緣，今生偏又遇著他；若說有奇緣，如何心事終虛化？一個枉自嗟呀，一個空勞牽掛。一個是水月中，一個是鏡中花。想眼中能有多少淚珠兒，怎禁得秋流到冬盡，春流到夏！”馮其庸，《紅樓夢校註》，里仁書局，1984，91쪽.

27) “自古奸淫應橫死”-馮夢龍，《醒世恒言》，三民書局，1988，239쪽.

28) “한부인은 아직 천자와의 동침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 때는 바야흐로 아름다운 봄날이라 경치가 사람을 미혹시키니 붉은 이부자리를 증오하며 비취빛 담요에 차가움이 생겨나네. 달이 구슬 같은 섬돌에 내리니 근심스러움에 봉황 같은 음악도 듣기 싫고, 벌레들이 흰 벽에서 노래하나 원망스러움에 원앙금침에 눕기도 싫어하네. 아침 화장도 하기 싫고 점점 傷春에 녹아드니 한숨만 쉬며 마침내 병을 얻게 되었다. - “동풍이 부는 대로 두지만 내 눈물을 불어가

나와 요양하던 중 사묘의 이랑신의 남자다운 외모에 끌려 춘심이 태탕하여 그를 지극히 사모하면서 매일 기도를 올리며 애타게 그리워하는데²⁹⁾, 이는 사실 ‘意淫’의 경지에 이른 상황이다. 그 결과 그녀는 이를 교묘히 이용해 이랑신으로 사칭한 사묘의 묘관 남성과 만나고, 그녀는 거의 주동적으로 그를 방으로 끌어들여 통정을 맺는다. 결국 궁녀를 간음한 이 자는 나중에 능지처참을 당하지만 그녀는 평민으로 돌아가 상인과 결혼해 자신의 평생의 원을 풀며 천수를 누렸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소설의 작자는 궁녀 한씨의 사념과 욕정에 대해 그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고 정당한 청춘의 욕정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언 애정류 소설에 나타난 욕정에 대한 강조와 과장적 표현은 비단 “하나는 ~이고, 하나는 ~이다”라는 식의 표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남녀가 서로 상대에게 이끌려 반하게 되는 상황에는 의례히 관능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하며 더구나 육체적 관계를 맺을 때에는 이런 강조와 과장적 묘사가 뒤따른다. 그 예를 몇 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그 여자는 장순미에게 희롱당하여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였다. 눈은 어질어질하고, 마음은 심란하였으며, 또 다리도 풀어지고, 발도 저렸다. 한참 동안 뉘를 잃은 듯 있다가 마침내 네 눈과 두 얼굴에서 서로 정이 오고 갔다.³⁰⁾(〈張舜美燈宵得麗女〉)

지 않네. 붉은 얇고, 깊고, 축고, 따뜻하고, 비 오고, 맑은 것을 기억하나 모두 가인의 운명을 꺾어 가버렸네. 정처 없이 떨어지는 꽃은 춘심을 끌어가고, 향기 나는 풀은 여전히 춤추는 나비를 미혹시키네. 푸른 버들은 부질없이 앵무새에게 말하고, 단약을 열심히 두들겨 처음 만들어져 머리를 돌리니, 雲英을 잃어버렸네. 마치 취한 듯, 마치 어디에 빠진 듯, 마치 미친 듯, 마치 춤추는 듯, 마치 꿈꾸는 듯, 마치 놀란 듯하네.”, 풍몽룡, 같은 책, 219-220쪽에 대한 필자의 번역.

29) 한부인은 그 모습을 보자 눈이 아찔하고 가슴이 흔들려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지막이 감탄하는 소리를 흘러 보내고 말았다. “내가 만약 앞날이 정정하다면 장차 오로지 이 신과 같은 모습의 남편에게 시집갈 수만 있다면 내 평생의 소원을 다 이룬 것일 텐데.”, 같은 책, 223쪽.

30) 최병규, 《삼언》, 창해출판사, 2002, 348쪽.

한부인은 그(이랑신) 모습을 보자 눈이 아찔하고 가슴이 흔들려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지막이 감탄하는 소리를 흘려 보내고 말했다.³¹⁾(〈勘皮靴單證二郎神〉)

그녀는 그를 방안으로 안내하였고, 銀燈을 붙여 끄고, 옷을 벗고 자리에 들었다. 두 사람은 처녀총각이라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양을 만난 듯, 파리가 피를 본 듯하였고, 이름을 묻고 예의를 갖출 여유가 없었다. 두 사람이 즐거움을 만끽한 연후에 장순미가 말했다.³²⁾(〈張舜美燈宵得麗女〉)

이는 삼언의 작가가 남녀가 서로 반해 나타나는 신체의 생리적인 현상에 주목하여 그것을 과장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욕정을 자연스럽게 정당화시키며, 고의로 남녀 간의 욕정을 돌출적으로 강조하여 과장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3. 欲(肉)과 情(靈)을 어렵듯이 구별하는 과도기적 욕정관

전술한 바대로 삼언 속 남녀 간의 사랑은 대부분 첫 눈에 반하는 사랑으로 여기에는 욕정(욕)과 사랑(정)을 하나로 보는 애정관이 숨어있다. 즉 상호간의 정신적인 교류나 영혼의 공감,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해를 갖기도 전에 육체적 결합을 통해 상대에게 평생을 맡겨버리는 식이다. 앞에서 예시한 삼언 애정류 작품들을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난다. 그런 까닭에 진영정도 삼언 속에는 용속적인 색정과 욕욕만 횡행하지 정신적인 고아한 사랑이 없다고 역설한 것이다.

전술한대로 정주이학을 신봉하던 중국인들은 정과 욕을 사람이 지닌 ‘人欲’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天理’에 반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이에 불만을 품은 명청의 주정주의적 문인들은 ‘정’의 가치를 높이 구가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31) 주29 참조.

32) 최병규, 앞의 책, 351쪽.

그들은 ‘정’ 뿐만 아니라 ‘욕’도 함께 강조하게 되었으니, 만명의 주정주의 문인들이 주장하는 ‘정’ 속에는 인간의 ‘욕정’이 자연히 포함돼있는 경향이 대부분이었다. 정과 욕을 분리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情欲合一’의 정애관은 《홍루몽》의 출현과 함께 순수한 정신적인 사랑을 강조한 정(영)의 세계와 저속한 욕욕적인 욕정(욕)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뚜렷이 구분하게 된다.³³⁾ 삼언 속의 정애관은 대개 중국전통문학에 나타난 정욕합일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 중 몇 작품들은 욕욕을 초월한 정신적인 영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몽롱하게나마 드러나고 있음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삼언의 욕정관은 욕(욕)과 정(영)을 어렵듯이 구별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삼언 속에서 욕정을 초월한 정신적 정(영)의 가치를 역설한 작품으로 가장 대표적인 걸작이라면 단연 〈賣油郎獨占花魁〉이다. 진중은 비록 왕미낭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돈을 모아 그녀를 찾았지만 그는 단순히 그녀에 대한 욕정을 풀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런 까닭에 그날 밤 그가 왕미낭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지만 그는 그녀의 몸을 탐닉하지 않고 그녀가 회복되길 기대하며 정성껏 간호해주었다. 그 부분을 보면,

그는 미낭의 몸 곁으로 다가가 왼손으로는 가슴에 찻주전자를 안고, 오른손으로는 미낭의 몸을 안은 채 눈도 감지 않고 있었다. - “雲雨의 행동 취하지 않아도, 그 또한 여성의 아름다운 몸에 기대어있는 거라네.”³⁴⁾

이런 진중의 모습에서 우리는 왕미낭에 대한 그의 욕정을 초월한 정신적 사랑을 느낄 수가 있으며, 이는 욕정에 빠져 왕미낭을 강제로 취하려는

33) 가보옥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정신적인 영적인 사랑이며, 이는 이 소설 속에 나타난 술한 다른 남성들의 욕욕과는 확연히 차원이 다른 세계이다. 이런 극명한 차이를 통해 이 소설의 작가는 가보옥식의 양성관계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34) 최병규, 앞의 책, 272쪽.

오공자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이에 대해 작자는,

“거문고를 불태우고 鶴을 삶아 죽이는 일은 예로부터 있었지만, 여자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자가 그 몇이나 되든가?”³⁵⁾

즉 작가는 이름의 의미대로 秦重을 情이 깊은 자(즉 情種)으로 묘사하면서 양성 간의 ‘욕정을 초월한 정(靈性)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정(영)과 욕(욕, 혹은 淫)을 구별하면서 靈性的 가치를 칭송한 작품은 이 외에도 위에서 예시한 〈錢秀才錯占鳳凰儔〉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작품 속에서 사촌형 안준의 성화에 못 이겨 대신 혼인식을 치른 전청은 신혼 첫날밤 신부와 같이 신방을 치르도록 들여보내졌지만 그는 결코 신부를 범하지 않고 옷을 입은 채로 침상 위에 올라 혼자 잠을 청했다. 나중에 거짓 혼인이 들통이 나 현감이 그의 죄도 추궁하며 심문할 때, 현감과 전청이 나누는 다음의 대화를 보면 이 점이 잘 나타난다.

대운은 다시 전청에게 물었다.

“네가 당시 혼인에 승낙하였을 때, 정말 사심이 없었던 말인가?”

이에 전청이 답했다.

“고찬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옵니다. 생원이 재차 거절하였지만 고찬이 허락하지 않아 저는 제가 또 다시 거절한다면 의심은 사 사촌 형의 대사를 그르칠까 두려워 잠시 혼인식을 치른 것입니다. 비록 사흘간을 같은 침대 위에서 잤지만 저는 옷을 입고 자며 결코 그녀를 침범하지 않았습시다.”

그 말에 대운은 ‘하하’하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자고로 오직 류하혜(柳下惠)만이 욕정을 참으며 선을 지켰고, 그 노나라의 남자도 비바람이 치는 야밤에 이웃 집 여자를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너는 젊은이로 혈기가 왕성한데 어찌 사흘 밤을 혼자 자며 여자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그 말을 누가 믿을 것 같으나?”

전청이 말했다.

“저는 오늘 제 심정을 말씀드렸지만 나리께서 꼭 믿으시리라고 생각은

35) 최병규, 같은 책, 282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찬으로 하여금 딸에게 물어보게 하면 참인지 거짓 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³⁶⁾

여기서 대운이 “너는 젊은이로 혈기가 왕성한데 어찌 사흘 밤을 혼자 자며 여자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그 말을 누가 믿을 것 같으나?” 라는 말은 당시 남녀의 욕정관을 잘 반영하였다. 전청은 이런 세속의 욕정관을 초월해 욕정(淫)의 유혹을 물리쳤고, 이로써 대운의 존경을 받게 되어 결국 고찬의 진짜 사위가 된다. 반면 욕정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안준은 낭패를 당하면서 이 소설은 탐욕스러운 과도한 욕정을 폄하하고, 절제된 靈性的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⁷⁾

V. 나오는 말

풍몽룡이 살던 晚明清初의 시기는 程朱理學과 봉건예교가 점차 와해되어 가며 동시에 “以情反理”를 주장하던 계몽주의적 사회분위기가 점점 무르익던 시대였다. 이런 시대적 배경의 영향으로 그의 사상은 당시 통치이념이었던 정주이학에 대해 다분히 반항적인 면모를 띠고 있었다. 그는 봉건적 예법제도와 名教의 허위와 가식을 혐오하면서 인간 본연의 情이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人性을 陶冶하고 風俗을 教化하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의 이러한 情觀은 당시 王陽明 左派를 비롯하여 李贄와 湯賢祖 등과 같은 이들의 영향을 받은 것임은 물론이다.

36) 풍몽룡, 앞의 책, 《醒世恒言》, 138쪽.

37) 何滿子是 당전기 소설 가운데 《任氏傳》 속의 위음과 임씨 간의 양성관계를 중국고전문학에 나타난 ‘육체적 욕정을 초월한 최초의 정신적 교류’라고 설명하고 있다. (何滿子, 《中國愛情小說中的兩性關係》, 上海書店出版社, 1999, 66 쪽) 사실 위음과 임씨 간의 관계를 ‘사랑’이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는 관계지만 여하튼 두 남녀의 교류는 육체적 관계를 초월한 이성관계임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錢秀才錯占鳳凰儔》 속의 전청은 행위도 남녀 간 욕정을 초월한 靈性的 가치를 칭송한 작품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삼언 속의 정의 함의는 대체로 정과 욕을 명백히 분리하지 못한 중국의 전통적인 정욕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애정류 작품들에서 욕정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지만, 정을 도덕이나 예법을 초월한, 인간 본성 속 진실하고 순수한 정감으로 간주하며 인의도덕의 단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 점은 선진사상에서부터 비롯된 정에 대한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몇몇 작품에 나타난 욕정을 초월한 남녀 간 정신적인 사랑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훗날 《홍루몽》을 비롯한 근대적 소설이 등장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삼언 속의 정은 크게 치정과 여성에 대한 동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중국문화의 오랜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치정은 위진남북조시대에 크게 대두된 치정의식이 만명의 주정주의적 정신과 함께 다시 부활된 것이며, 여성에 대한 동정은 중국의 전통적 여성존중 사상이 만명 계몽주의적 사조와 함께 다시 남녀평등과 여권신장 등의 정신으로 발전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언의 작자는 작품 속 욕정에 대한 생동적인 묘사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억제하고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하지만³⁸⁾, 남녀 간 욕정에 대한 작자의 지나친 과장적 표현 내지는 미화의식으로 인해 마치 작자가 욕정을 무조건적으로 칭송하거나 선정적이고 호색적인 취향을 지닌 것으로 오해되는 소지를 빚기도 하여 본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욕정을 긍정하는 삼언의 주제의식을 다소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욕정을 호색적이지만 미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점은 중국소설의 또 다른 경지를 개척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석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8) 王宏圖, 〈慾望의突現與調控 - 對“三言”“二拍”的一種讀解〉, 《中州學報》, 1998년 제2기.

< 參考文獻 >

- 천혜숙,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구비전설의 세계>, 안동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년 정기학술발표논문.
- 최병규, <선진문헌 속에 나타난 정의 함의>, 고려대학교 <중국학논총>
제34집, 2011.
- 최병규, <위진풍도에 나타난 정의 함의>,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 제43
집, 2012.
- 최병규, <풍몽룡과 삼언>, <인문학논총(1), 2001>, 국립7개대학공동논문
집간행위원회.
- 최병규 편역, <삼언>, 창해출판사, 2002.
- 段玉裁, <說文解字注>, 蘭臺書局, 1983.
- 李贄, <藏書>, 中華書局, 1974.
- 李贄, <焚書>, 岳麓書社, 1990.
- 湯顯祖, <牡丹亭>, 里仁書局, 1968.
- 吳存存, <明清社會性愛風氣>, 人民文學出版社, 2000.
- 陳永正, <三言·二拍的世界>, 遠流출판사, 1989.
- 徐朔方, <小說考信編>, 上海古籍出版社, 1997.
- 劉哲, <論三言二拍的婚戀小說>, <哈爾濱學院學報>, 제31권, 2010.
- 許政揚 校注, <古今小說>, 里仁書局, 1991.
- 馮夢龍, <醒世恒言>, 三民書局, 1988.
- 朱熹, <四書章句集註>, 上海古籍出版社, 1983.
- 馮其庸, <紅樓夢校註>, 里仁書局, 1984.
- 歐陽代發, <解讀宋元話本>, 雲龍出版社, 1999.
- 何滿子, <中國愛情小說中的兩性關係>, 上海書店出版社, 1999.
- 王宏圖, <慾望의 突現與 調控 - 對“三言”“二拍”의 一種 讀解>, <中州學報>,
1998년 제2기.

<Abstract>

This paper focused on Qing(情) and Yu(欲) in Sanyan(三言) novels. Qing(情) is platonic love, Yu(欲) is sexual desire. In traditional chinese culture, chinese philosophers did not segregate Qing(情) from Yu(欲), they thought Qing(情) is composed of Yu(欲). Therefore in chinese ancient literature, platonic love and sexual desire were always united together. But this paper segregate Qing(情) from Yu(欲) in Sanyan. Qing(情) in Sanyan is composed of infatuation(癡情) and sympathy for poor pathetic women like prostitute and concubine. Yu(欲) in Sanyan was described very plainly, the author of Sanyan accepted the Yu(欲) as a natural thing. That is why there are so many amorous expressions in the novels. They went as far as to glorify the sexual desire between two sexes.

Key Words : 情(Qing), 欲(Yu), 三言(Sanyan), 情(platonic love), 欲, 欲情
(sexual desire), 癡情(infatuation)